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만장길' 첫 선

김녕초-만장굴 4.8km 구간
15일 첫 걷기 행사 열려

세계자연유산의 선각자로 평가받는 한산 부종휴(1926-1980) 선생이 꼬마탐험대를 조직해 만장굴 탐사에 나섰던 길이 '만장길'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돼 첫 걷기 행사가 열렸다.

만장길은 김녕초등학교 부종휴과 꼬마탐험대 조형물에서 만장굴 제1입구까지 4.8km에 이르는 구간이다. 부종휴 선생이 1945년 3월 김녕초등학교 교사로 부임 이듬해 이 학교 6학년 학생 30명으로 꼬마탐험대를 조직하여 만장굴 탐사에 나섰던 길이다. 4차례의 탐사 끝에 만장이거멸의 실체를 확인하고 1947년 2월 '만장길'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만장길 걷기 행사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 김녕초등학교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조형물 앞에서 출발하여 만장굴 제2입구까지 5.5km코스에서 진행됐다. 걷기에 앞서 이 학교 6학년 학생 20명이 나서 식전행사로 난타공연과 밴드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지난 15일 김녕초-만장굴 구간을 잇는 '만장길'이 탄생돼 첫 걷기 행사가 열렸다.

(본부장 고길림) 주최,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이사장 강만생)과 (사)한산부종휴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고민수)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과 홍경의 전 도의원, 부만근 전 제주대총장, 고숙이 김녕초등학교 교장,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을 비롯 문화계 인사와 산악인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두전·김시복 생존 꼬마탐험대원과 부종휴 선생 장남 명제 등 유족과 학생들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고길림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을 마련한

선구자들의 업적 발굴은 물론 앞으로 제주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만생 이사장은 "부종휴 선생과 관련한 업적을 발굴하고 사업을 전개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생존해 계신 꼬마탐험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고숙이 교장은 "꼬마탐험대를 학교 전통으로 이어가고, 교육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랑스런 전통으로 계승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농협·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무료 급식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 600여명을 각각 제주시 삼도1동을 비롯해 서귀포시 남원1리와 세화1리 지역내 경로당으로 초청해 한돈 전달 및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제주도체조협회 제4회 생활체조대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회장 강장용)는 지난 16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조협회 회장배 생활체조대회를 개최했다.

바살기 조천읍위원회 도로변 봉사활동



조천읍(읍장 김덕홍)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천읍위원회(위원장 박두빈)는 지난 14일 지역내 도로변에서 불법, 안내판 등 노상적치물을 철거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일도1동지역사회보장협 '사랑의 식당'



일도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명석·신금순)와 동문감자탕은 지난 14일 칠성경로당에서 지역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식당'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등정

4·3위령비 제막식 행사 참석

◇김덕홍 조천읍장 지난 15일 선흘리 4·3위령비 제막식 행사에 참석해 영혼들의 넋을 위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홍보 당부

◇김현숙 건입동장 지난 14일 직원 전체회의에서 일회용품 안쓰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위해 자생단체, 공공기관 및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

서양화가 백광의 블라디보스토크 초대전

제주 중진 작가인 서양화가 백광의(사진)씨가 11월 18-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미술협회 전시장에서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연작으로 초대전을 갖는다. 백광의 작가는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31회 개인전을 가져왔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지냈고 대한민국 남부현대미술협회 부이사장, 제주프리비엔날레 운영위원장 등을 거쳤다. 현재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 동아육선 전속작가로 있다.

제주대 총학생회 등 자치기구 임원 선출

이재영, 양예나, 김석진
지난 13일 치러진 제주대학교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 결과 총학생회장에 이재영(국어국문학과 4), 부학생회장에 강승준(행정학과 3)씨가 각각 당선됐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양예나(경영학과 3)·정향신(경영학과 3)씨가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뽑혔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는 김석진(정치외교학과 3)·류수현(생물학과 2)씨가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총대의원회는 후보자가 없어 추후 보궐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귀포소방서 베스트 직원에 현승남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소방서는 최근 '4분기 BEST 직원'으로 대신 119센터 현승남(사진) 소방위를 선정했다. 이번 'BEST 직원'으로 선정된 현승남 소방위는 센터 선임 팀장으로서 업무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화재 63건, 구조 27건, 구급 19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평소 모범적인 생활자세로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 만화·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2019년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5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길림)가 주최하고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이사장 윤용택)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주제로 진행됐다.

캐릭터 공모전 대상에는 김유진씨의 '산이 포포리 동글이 세 친구들'이 선정됐다. 만화 공모전 대상은 어린이부는 제주 한라초등학교 5학년 진우 학생이, 청소년부는 서귀포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슬람미 학생이 차지했다. 특별상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상에는 캐릭터 부문에서 김예빈씨의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이, 만화 부문에는 대구 학남고등학교 1학년 박영주 학생이 선정됐다.

입상작 67점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시되고 있다.

중문청소년문화의집 봉사활동 우수기관

중문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희옥 여성가족과장)이 지난 16일 미래컨센서스에서 열린 201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종합 시상식에서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우수사례에서 도내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우수청소년 활동부문에서 김성익(서귀포고 3) 학생, 자원봉사대회 우수청소년 자원봉사자에 청소년동아리 '혜움'이 각각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0,000원 환급)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기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기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연결'이기에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0410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